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촉구 결의(안)

1995년 3월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당시에는 위천산업단지 조성
과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조성으로 삼성 상용자동차와 함께 달성산업단지
를 연계한 자동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내륙공업 도시건설과 인구 30만의 신도시
건설 등 각종개발계획 발표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희망과 기대는 극에 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좌절과 피해의식으로 배신감 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6개월이내에 해결하겠다고던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은 경제논리
가 아닌 정치논리로 인하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토지는 공원 또는 녹지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군전체 면적의 약46%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기막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인데 그 위에 이러한 현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되어 군민들의 피해의식은 한층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부지 조성공사 공정 약36%에서
중단되어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국가시책에 호응
하고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여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인 농토와 주택, 심지어
조상의 분묘(약2,200기)까지 약82만평을 흔쾌히 내 놓았던 지역민들로서는 참을수
없는 실망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주)대우와 채권단은 이러한 지역민
들의 피해와 바램을 도외시 하고,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상태
에서 쌍용자동차를 (주)대우와 함께 외국업체에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회생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
들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
쳐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한바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도 1999년 7월 2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서는 특정업체 및 지역문제로만 국한하여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당국(업체)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합니다.

1. 쌍용자동차(주), (주)대우 및 채권단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제3자 일괄매각 추진을 중지하고 대구광역시에 매각할 것.
2. 대구광역시장은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할것.
3. 쌍용자동차 구지지방산업단지 매각 협상이 대구광역시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고 원지주에게 환매할것.
4. 대구광역시장은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 개발이 안될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할것.

2000년 5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의 회